

수행문화콘텐츠로서의 화두 참구에 관한 철학적 연구 : 參究와 參句*

박 재 현**

국문초록

‘화두참구’는 한국의 禪 수행자나 연구자들이 漢字 병기조차 없이 쓸 정도로 보편화된 선 수행 용어다. 선 수행을 설명할 때뿐만이 아니라 문헌연구 과정에서 번역어로도 자주 쓰인다. 그런데 ‘참구’라는 용어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또 전문 학술 번역어로 쓰기에도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參究와 參句의 용례와 그 의미를 역사적 문헌적으로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한국어 ‘참구’로 발음되는 말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參究와 參句 등 두 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구’로 번역되는 한자어로 單提, 參, 參詳, 作活計 등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 원어와 번역어 ‘참구’가 혼용되거나 부정확한 의미로 쓰이는 사례 확인을 통해, ‘참구’가 선에 대한 설명어나 번역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참구’의 새로운 의미를 밝혀내거나 번역어를 제안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적절한 의미나 번역어는 선 문헌에 대한 연구와 번역 과정에서 개별 용어의 의미와 번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명증한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많은 선 용어 가운데 대표적으로 ‘참구’를 사례로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집중하였다.

[주제어] 參究, 參句, 參意, 看話, 화두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參句’의 용례와 의미 |
| II. 번역어로서의 ‘참구’ | V. ‘參究’에서 ‘參句’로 : 구별짓기 |
| III. ‘參究’의 용례와 의미 | VI. 나가는 말 |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18A041).

** 동명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 / fangbian@naver.com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선불교의 話頭 수행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개념인 ‘참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화두 수행을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바로 ‘참구’가 아닐까 싶다. 흔히 ‘화두 참구’라는 말로 상투적으로 쓰이는 이 용어는, 선 수행자나 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상어에 가까울 정도로 별다른 의심 없이 쓰이고 있다. 출가 혹은 재가 수행자는 물론이고 학술 연구자들까지도 ‘참구’라는 용어는 더 이상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개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참구’라는 우리말에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일단 우리말 ‘참구’에 해당하는 한자말이 두 가지다. ‘參究’와 ‘參句’가 그것이다. 그런데 ‘參究’와 ‘參句’가 한국어 발음상 구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병기조차 없이 그냥 소리나는 대로 ‘참구’라고 적거나 말하는 경우가 많다. 참구라는 용어가 수십 차례 등장하는 학술논문에서조차 단 한 번도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원전에 ‘參究’나 ‘參句’가 없는데도 참구를 번역어로 쓰는 경우까지 있다.

불교 문헌을 직접 확인해 보면 ‘參究’ 못지않게 ‘參句’ 역시 비중 있게 쓰이고 있다. 게다가 화두도 말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화두참구라고 할 때의 참구는 ‘參究’보다 ‘參句’가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어쨌든 선 문헌에서는 ‘參究’와 ‘參句’가 모두 쓰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선 한자어 ‘參究’와 ‘參句’ 이 두 개념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참구’라는 용어를 일상어처럼 쓰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 수행을 설명할 때 화두 ‘참구’라는 용어를 연거푸 말하면서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참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도 묻지도 않는다. 어느 때부터인가 ‘참구’는 선 공부하는 사람이면 다 아는 용어, 그 의미도 서로 잘 알고 있는 용어처럼 되어있지만, 과연 그런지 자신하기 어렵다.

‘참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이해나 설명을 진행하려는 노력도 없지 않았다. 참구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이해 내용은, 대개 한글 ‘참구’에 한자어 ‘參究’를 병기하고, ‘수행자가 화두에 의식을 집중하다’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얼마나 사계(斯界)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參究’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두참구’라는 용어는 선불교 분야에서 보편화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상의 혼동은 물론 그 의미조차 모호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參究’와 ‘參句’의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그 의미를 추적해 보고, 이 두 용어가 선불교 수행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지도 짐작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선 수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이해를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번역어로서의 ‘참구’

번역이 단순히 소리의 옮김에 그치지 않고 의미의 옮김이어야 한다면, ‘참구’는 번역어로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구’를 학술 번역어로 쓰기에는 그 의미의 경계가 너무 넓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참구’는 각종 법문에서 자주 쓰는 용어지만 별다른 개념 정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법문에서 “참구하라”는 말은 “열심히 하라”말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¹⁾

학술논문에서도 (화두)참구라는 용어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그 의미 폭이 제각각이다. 현재 학계에서 ‘참구’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보인다.

- ① 그들이 말하는 ‘관찰함看’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참구(參究)’한다는 말로도 쓰이는데, 화두에 온 정신을 쏟아서 화두에 의심이 사무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 ② 유·무와 진무의 병통을 포함하여 무자를 참구하면서 나타나는 병통을 제기함으로써 공부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조목이 간화십종병이다.³⁾
- ③ 화두를 참구하면 왜 돈오 견성하는가 …… 간화선에서 화두 의심/의정을 챙기는 것을 ‘참구(參句)’라고도 한다. 그래서 화두 참선을 ‘공안(公案)을 참구한다’고도 말한다.⁴⁾
- ④ 그는 특히 僧俗을 불문하고 입사자들에게 話頭와 禪詩를 참구하도록 중용한 것이 특징이다.⁵⁾
- ⑤ 우리나라 선승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방법(간화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 참구 방법이 공존·혼재했다. 하나는 ‘오로지 무자 화두를 들기만 하라(但看話頭. 妄念起時, 但舉箇無字)’는 방법이고, 하나는 ‘어째서 조주가 無라고 했는지, 그(조주) 뜻을 참구하라(趙州因甚道無, 意作麼生. 參趙州因甚道箇無字)’고 하는 방법이다.⁶⁾
- ⑥ 간화선은 화두참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 내지 본래면목을 깨닫고자 하는 수행법이다.⁷⁾

- 1)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불기 2560년 신년하례법회에서, “우리 사부대중은 일생생활 속에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서 의심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화두 참구에 모든 대중이 매진하길 바랍니다.”라고 설법했다. 또 송담스님은, “활구참선은 선지식으로부터 공안(公案) 하나를 받아서 이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못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화두를 참구(參究)해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인용한 내용은 『활구참선법: 송담스님 법어』라고 제목이 적혀있는 인쇄물에 게재된 것이다. 용화선원에서 유포한 자료로 보인다. 원고의 맨 마지막에, “이 법어는 송담(松潭)스님께서 1978년 10월 1일, 『법련사 불일청년회』의 청법으로 설하신 내용이며, 스님께서 직접 편집하신 것을 『불일회보』(1988년 6·7·8월)에 게재했었던 원고임.(성전스님 채록)”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 2) 신규탁,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강의, 참구에 관한 검토: 『벽암록』 제1칙 『달미불식(達磨不識)』 번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선학』 30, 한국선학회, 2011, 65쪽. 이 논문의 영문초록을 통해 논자가 ‘참구’를 ‘Concentration’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3) 김영옥, 「간화선 참구의 실제: 無字 화두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19, 2003. 이 논문의 영문초록을 통해 논자가 ‘참구’를 ‘Practice’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4) 박태원, 「화두를 참구하면 왜 돈오 견성하는가」, 『철학논총』 58, 2009, 87쪽. 이 논문의 영문초록을 통해 논자가 ‘참구’를 ‘Practice’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5) 정명옥(친봉), 「慧謙의 話頭參究法: 法語와 書答, 그리고 그 속의 禪詩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10, 한국선학회, 2005, 115쪽. 이 논문의 영문초록을 통해 논자가 ‘참구’를 ‘Enquire into’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6) 윤창화, 「화두참구의 두 가지 방법과 漢岩禪」, 『대각사상』 23, 2015, 196~197쪽.
- 7) 한자경, 「간화선의 철학적 이해」, 『한국선학』 36, 2013, 358쪽.

위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논문마다 똑같이 ‘참구’를 말하고 있지만 그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 각 논문의 영문초록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 ①의 경우에는, 의식의 ‘집중(concentration)’을 참구로 이해하고 있다. ②와 ③의 경우에는, 화두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수행’(practice)을 참구라고 보고 있다. 이때의 행위 혹은 수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④의 경우는 학습형태의 ‘조사(enquire into)’를 참구로 보고 있다. 그래서 시(詩)도 참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⑤의 경우는 영문 번역이 따로 없어 참구의 의미를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화두의 ‘뜻(의미)’을 생각해보는 것’ 정도로 짐작된다. ⑥의 경우는 화두의 유지(keeping)라는 의미로 적고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이런 의미상의 뉘앙스 차이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발견된다. 엄연히 다른 한자어를 병기해 두고도 맥락상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①과 ③의 경우를 보면 한자까지 병기해 두고 있는데, 參究와 參句로 다른 한자를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문맥상 의미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 외의 다른 경우는 한자어조차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 ‘참구’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무작위로 살펴봐도, 불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조차도 ‘참구’라는 용어의 의미가 부정확하고 모호한 채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잘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선 문헌에서 ‘참구’라는 용어가 이미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공존 및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용어가 별다른 여과나 반성 과정 없이 그대로 번역어로 통용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참구를 번역어로 쓰기 곤란한 두 번째 이유는, ‘참구’라는 번역어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정확히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이나 되어서 이 모든 개념들을 그냥 ‘참구’로 번역해도 좋을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참구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參究’와 ‘參句’ 두 가지가 있다. 선학 분야에서 ‘參句’는 ‘參究’ 못지않게 비중 있는 용어이고, 그 의미와 용례에서 겹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① 西山休靜은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徑截門의 활구를 가리킨다. 이것은 마음으로 헤아릴 방법이 없고 말로 표현할 길이 전혀 없어서 어떤 모색도 할 수 없다” 하였다.⁸⁾
- ②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화두참구이다. 즉 화두를 간택하여 그 **화두를 참구**함으로 해서 간화선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⁹⁾

위의 두 문장은 모두 정구 학술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인용문에서 ‘참구’라는 말은 문장의 맥락을 따져 봐도 그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자 원문은 엄연히 다르다. 앞의 인용문은 원문이 參句이고, 뒤의 것은 參究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참구’로 번역되는 한자어는 이밖에도 더 있다. 연구자들이 ‘참

8) 김영욱, 「간화선 참구의 실제 : 無字 화두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19, 2003, 53~54쪽. 여기서 서산휴정의 발언으로 소개된 글의 출전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禪家龜鑑』 韓佛7.636b. “(參句者, 徑截門活句也. 沒心路, 沒語路, 無摸索故也.”

9) 월암, 「한국 간화선과 화두참구의 계승」, 『보조사상』 27, 2007, 42쪽.

구'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전상의 한자어는 참구가 아닌 사례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 ① “만약 장부라면 공안을 참구하라.”[若是箇丈夫漢，看箇公案¹⁰⁾
- ② “찰나찰나 놓치지 않고 참구하여”[念念提撕¹¹⁾
- ③ “언구로써 참구하려고도 말고”[不得向語路上作活計¹²⁾
- ④ “화두만을 들고서 절실하게 참구하라.”[單提話頭，切切參詳¹³⁾
- ⑤ “‘無’라고 하는 한 글자를 참구하라.”[但舉箇無字¹⁴⁾
- ⑥ “오로지 이와같이 참구하라.”[但只如此參¹⁵⁾
- ⑦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참구하려 한다면”[你若欲究這般事¹⁶⁾

위에 보듯이 看, 提撕, 作活計, 參詳, 舉, 參, 究 등의 한자어도 등의 한자어도 모두 연구자들이 ‘참구’로 번역하는 용어들이다. 이 모든 한자어를 ‘참구’라는 한 마디로 번역해도 선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또 대부분 한자를 병기하지 않고 ‘참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현실에서, ‘참구’와 마주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한자어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참구’를 번역어로 써도 좋을지 의구심이 든다.

참구를 번역어로 쓰기 곤란한 세 번째 이유는, ‘참구’는 한자어를 우리말 발음으로 옮긴 것일 뿐 현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말 사전에는 ‘참구’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네 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參究, 懺咎, 讒口, 讒構 등이다. 이 네 가지 단어 모두 우리말 사전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고전을 읽을 때나 쓰는 용어이지 사실 현대에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이 네 가지 한자어 중에서 선 문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參究’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참조하여 연구함”과 “(불교)참선하며 진리를 탐구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사전에서는 설명한다.¹⁷⁾ 그렇다면 ‘화두참구’라는 말을 ‘화두연구’나 ‘화두탐구’로 바꿔 써도 무방하다. 적어도 사전상의 의미로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학자 특히 선학자들은 이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화두연구’나 ‘화두탐구’는 왜 안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에 대해 선뜻 대답하기도 쉽지 않다.

어쨌든 연구나 탐구라는 용어로는 충분히 표현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 개념들과 구분되는 불교적 맥락에서만 유효한 참구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 ‘연구’나 ‘탐구’로는 옮겨 적을 수 없고, 참구가 이런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지 명쾌하게 설명할

10) 월암, 앞의 논문, 44~45쪽. 이것은 『완릉록(宛陵錄)』에 실린 한 문장을 번역한 것이다.

11) 정명옥(천봉), 「慧謙의 話頭參究法 : 法語와 書答, 그리고 그 속의 禪詩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10, 2005, 102쪽. 이것은 『曹溪眞覺國師語錄』에 실린 한 문장을 번역한 것이다.

12) 김호귀, 「간화선의 성립배경」, 『보조사상』 19, 2003, 28쪽.

13) 김영옥, 「간화선 참구의 실제 : 無字 화두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19, 2003, 84쪽.

14) 윤창화, 앞의 논문, 194쪽.

15) 윤창화, 앞의 논문, 199쪽.

16) 이장구, 「懶翁 禪의 실천체계」, 『범한철학』 26, 2002, 15쪽.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재간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참구’를 번역어로 쓰기 어려운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과정에서 ‘참구’라는 개념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의미의 모호함과 혼란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 ‘참구’는 선에 대한 이해를 모호하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오해를 야기하거나 미망을 조장하거나 심지어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구라는 개념이 더는 번역어로 적합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구의 의미를 재검토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어도 연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현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의미 범주만이라도 설정하는 학술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Ⅲ. ‘參究’의 용례와 의미

본 연구자가 보기에 불교계나 학계에서 ‘화두참구’라고 말할 때 그에 상응하는 한자어는 대개 ‘參究’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제부터가 ‘참구’라는 말이 선 수행의 특수 용어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參究’는 선에만 한정된 용어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행위는 모두 ‘參究’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구의 의미를 정하면, “화두참구는 다르마끼르피와 그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제법무아의 참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¹⁸⁾는 발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화두참구’라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참구의 대상(목적)은 화두만 해당되는 것 같은 선입견이 생겨났다. 그리고 참구는 ‘화두를 다루는 어떤 특별한 기술’ 같은 인상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작 선 문헌에서는 화두에만 한정해서 참구를 말하지는 않는다. 선 문헌에서도 화두만이 아니라 불법과 관련된 것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행위는 모두 참구로 보고 있다. “부처의 뜻(佛意)을 참구하라”¹⁹⁾는 말도 있고 無字와 본래면목뿐만 아니라 염불도 참구의 대상으로 간주한다.²⁰⁾

이렇게 불법과 관련된 것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행위를 참구라고 할 때, 이때의 참구는 현대어의 ‘탐구’나 ‘연구’와 의미상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연구’의 사전상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이고, ‘탐구’의 사전상의 의미는,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이다. ‘연구’나 ‘탐구’ 두 용어 역시 그 의미가 참구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참구는 화두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선 수행 용어가 아니다. 실제로 선 문헌에서 參究를 찾아봐도 화두나 공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는 잘 발견할 수가 없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화두를 참구(參究)한다’라고 표현

18) 우제선, 「인식의 전환 : 다르마끼르피와 태고보우의 깨달음」, 『보조사상』 22, 2004, 123쪽.

19) 『大慧普覺禪師宗門武庫』, 大正藏47.950c. “너는 [『금강경』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고 부처의 뜻을 참구하거라.”(汝但日誦一遍, 參究佛意.)

20) 『禪宗決疑集』, 大正藏48.1015c. “무자를 참구하는 경우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경우나, 염불을 참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안이 비록 달라도 의심하여 궁구하는 것은 이렇듯 같은 것이다.”(或有參無字者, 或有參本來面目者, 或有參究念佛者. 公案雖異, 疑究是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송시대의 선승들은 주로 ‘참(參)’이라고 하였지 ‘참구(參究)’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화두 혹은 선을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은 주로 ‘참(參)’이라는 표현이었다. 참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 일, 행사에) 참여하다’와 ‘(윗사람을) 만나뵙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참선(參禪), 참구(參究), 참학(參學), 참당(參堂) 등의 단어에서는 ‘참여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참례(參禮), 참견(參見), 참문(慘問), 자참(咨參), 래참(來參) 등의 단어에서는 ‘만나뵙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화두를 참(參)한다고 하는 경우에 참은 참선이나 참학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다 동참하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뜻은 결국 간화에 동참하여 간화를 행하라는 뜻이다.”²¹⁾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선 문헌에서 ‘參究’가 처음 나타나는 곳은 고려말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蒙山和尚法語略錄』(흔히 『몽산법어』로 약칭) 가운데 합철되어 있는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이다.²²⁾ 여기서도 참구는 맥락상 선 수행법과 관련된 의미가 아니고, 좌선의 중요성과 핵심에 대해 적은 다음에 ‘열심히 탐구하라’는 의미 정도로 쓰이고 있다.²³⁾ 서구학계에서도 한자어 參究를 ‘연구’나 ‘탐구’에 해당 하는 현대어인 invest, study, inquiry 정도로 자연스럽게 번역, 이해, 설명하고 있다.²⁴⁾

화두참구라는 말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쓰이고 번역어로 정착된 이유는 앞서 살펴봤듯이 單提, 參, 參詳, 作活計 등의 용어들까지 모두 ‘참구’로 번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조차도 화두나 공안을 그 목적으로 갖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화두참구라고 해도 화두를 수단으로 한 면벽참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안에 대한 학습, 연구, 탐구 등의 제반 행위도 모두 참구에 해당된다. 게다가 화두 이외에 경전과 염불도 참구할 수 있다. 결국 ‘參究’는 선 수행에 한정된 특별한 전문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參究’의 용례와 본래 의미를 결론지어 보면, 參究는 주로 선 수행을 설명하거나 선 문헌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지만, 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염불이나 경전공부 등 불법과 관련하여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행위는 모두 參究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는 그 의미상 현대어 ‘연구’나 ‘탐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參究는 ‘화두를 다루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닌 것이다.

21) 박태완, 「간화 용어의 번역에 관하여」, 『대해보각선사어록(6)』, 소명출판, 2011, 240쪽.

22) “대부분의 몽산의 저술은 조선전기 간행본이며,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몽산의 저술과 한국에서 유통되어 온 저술 중에는 공통되는 것이 한 종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호선, 「조선전기 蒙山和尚六道普說 간행의 배경과 의미」, 『동국사학』 56, 93쪽.

23) 「休休庵主坐禪文」, 『三門直指』, 韓佛10.161c. “有志之士 宜善參究…….”

24) 『벽암록』에 나오는 “혜초선객이 여기서 깨달았던 것은 그가 평소애 항상 참구하였기에……”(只如超禪客於此悟去, 也是他尋常, 管帶參究……. 『佛果圓悟禪師碧巖錄』, 大正藏48.147b)라는 구절을 영역본에서는 “constantly engrossed in penetrating investig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또 “옛 사람을 살펴보면 20여년 동안 참구하고서도 미숙하여……”(看他古人, 二十年參究, 猶自半青半黃……. 200b)라는 구절은 “studied and investigated for twenty years”로 번역하고 있다. 각각 Thomas Cleary and J. C. Cleary tr., *The Blue Cliff Record*, SHAMBHALA: Boston & London, 2005, p.47; p.398.

IV. ‘參句’의 용례와 의미

參究라는 말이 화두를 가지고 하는(혹은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선의 기술 같은 인상을 주게 된 이유는, 參句라는 용어와 우리말이 혼용됨으로써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불교 수행 일반을 포괄하는 參究와 달리 ‘參句’는 선에 국한되어 선의 수행론적 특징을 설명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쓰인다.

參句는 글자 그대로 ‘말[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학이 아닌 전통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눈으로 보기에 參句로 상징되는 선의 수행론은 매우 특이하다.²⁵⁾ 화두참구를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글자는 參究라고 쓰고 있는 경우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미는 參句를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參句는 선 문헌에서 자주 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드물게 나타난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중국 선종사에 간화선이 출현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대정신수대장경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에 따르면, 參句는 『碧巖錄』에서 처음, 그것도 단 1회만 나타난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참구하기보다는 참의하는 게 낫고, 뛰어난 사람은 참의하기보다는 참구하는 게 낫다.”²⁶⁾는 바로 그 구절에서 보인다.

이후 參句라는 용어의 유포는 간화선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參句는 활구 참선을 강조하는 남종선 전통에서 參意와 변별력 있게 쓰이면서 널리 유포되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參句가 조선후기부터 한국불교계에서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參句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參究와 마찬가지로 지눌의 『간화결의론』이다. 그리고 이후 1564년(명종 19)에 간행된 『선가귀감』, 1736년(영조 12)에 간행된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 백과의 『수선결사문과석(修禪結社文科釋)』 등에서 참구는 참의와 구별되며 뚜렷이 부각되었다.²⁷⁾

參句가 강조될 때 동반하는 용어는 활구(活句)이다. 참활구(活句)참사구(參活句莫參死句)라는 말은, 『벽암록』에 처음 등장한 이래 『대혜어록』²⁸⁾과 『선가귀감』에서 인용되면서, 간화선 전통과 특히 조선 선불교에서 선 수행의 지남철 같은 경구가 되었다. 따라서 ‘參句’는 ‘參究活句’의 줄임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參禪念佛文』에는 목차에 “參究活句”라는 본말이 그대로 나온다.²⁹⁾ 參究活句가 ‘參句’로 쓰이면서, 參句는 參究와 변별력 있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학술연구자들 사이에서도 參句는 ‘사고적 의미’와 구분되어 어떤 ‘체험적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25)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왜 화두가 참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두는 言說이며, 그것도 경전에 입각한 聖言量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부터 부처와 조사들은 문자를 주장하지 않고 언어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오직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였다.’ 바로 이런 까닭에, 깨달음을 위해 문자를 참구하는 것은 일견 모순으로 보인다.” 우제선, 「인식의 전환 : 다르마끼르피와 태고보우의 깨달음」, 『보조사상』 22, 보조사상연구원, 2004, 120쪽.

26) 『佛果圓悟禪師碧巖錄』, 大正藏48.223c. “未透底人, 參句不如參意, 透得底人, 參意不如參句.”

27)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 韓佛9.560a. “參意者, 觀行用心, 亦有見聞解行之功也. 參句者, 初無法義, 聞解當情, 直以无滋味話頭, 但提撕學覺而已.”; 『禪家龜鑑』, 韓佛9.636b. “參句者, 徑截門活句也.”; 『修禪結社文科釋』, 韓佛10.538a. “話頭有句意二門. 參句者, 徑截門活句也, 沒心路沒語路無摸?故也, 即此章意. 參意者, 圓頓門死句也, 有聞解思想故也, 即前第二章意.”; 今時疑破者 多分參意 未得參句故(看話決疑論)

28) 『大慧普覺禪師語錄語錄』, 大正藏47.870b. “夫參學者, 須參活句, 莫參死句. 活句下薦得, 永劫不忘. 死句下薦得, 自救不了.”

29)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Home/Search>), H0322 v0, 856-b07.

받아들여지고 있다.³⁰⁾ 화두 그 자체에 대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구현 혹은 체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는 參究보다는 參句로 봐야 한다. ‘參句’는 화두에 대한 의미론적 혹은 해석학적 이해가 아닌, 화두 그 자체를 통한 수행자의 체험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V. ‘參究’에서 ‘參句’로 : 구별짓기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參句하기보다는 參意하는 게 낫고, 뛰어난 사람은 참의하기보다는 참구하는 게 낫다.”³¹⁾ 이 말귀는 『벽암록』 맨 마지막 제100칙인 「巴陵吹毛劍」 공안의 評唱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 관련 문헌 전체를 통틀어 參句 용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參句 용어의 출현 시기와 간화선의 등장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參句는 선을 교학불교 전통에서, 그리고 간화선을 기존의 선 전통에서 갈라 세운 혁명적 선언이었다.

參意와의 구별짓기를 통해 ‘參句’를 부각한 배경에는 선종사에서 간화선이 등장한 것과 동일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문자선과 유학의 문장학으로 대표되는 주지주의 혹은 문장 중심주의 경향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이 있다. “이차적 의미의 문자선은 “不立文字”의 본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것이며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대혜가 비판하는 문자 공부의 주로 이차적 의미의 文字禪이다.”³²⁾

화두를 두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혹은 “무슨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와 같은 종류의 의문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參意라 한다. 이에 비해, 화두를 의식에서 놓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參句라 한다. 參意 같은 주지주의적 수행 형태는 “공부 주체가 문자 자체에 의착하는 부작용을 낳고, 문자 공부의 공부 주체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고를 마비시키는 ‘공부의 블랙홀’이 되”³³⁾는 문제점을 낳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선이 전통적인 불교수행법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參意하는 선의 참구는 교학불교의 참구와 공부 방법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參意와 參句 가운데 불법을 參究하는 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적어도 학술적 논의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술적 논증을 통해 증명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수행 경험과 그 결과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0) 정성욱, 「알음알이의 분석적 연구 : 초기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35쪽.

31) 『佛果圓悟禪師碧巖錄』, 大正藏48, 223c. “未透底人, 參句不如參意, 透得底人, 參意不如參句.”

32) 변희욱, 「大慧의 文字 공부 비판과 言語 中道」, 『불교학연구』 10, 불교학연구회, 2005, 61~92쪽. 저자는 문자선의 이차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차적 의미의 문자선은 경전을 학습·연구하면서 禪理를 파악하는 선공부의 형식과, 문자 기교로 공부하면서 문자 위에서 선의 의미를 추구하는 공부 방법을 말한다. 공인과 공안 해석의 암기, 경전 주석 첨부, 그리고 공안의 절대화가 이런 공부의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자 표현 자체에 매몰되어 처음 어록과 공안이 생겨난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33) 변희욱, 앞의 논문, 63쪽.

학술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간화선에서는 參句의 구별짓기를 통해 선의 참구법이 교학 등 다른 전통의 참구 수행과 다르다는 것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의 일환으로 교학적 參究방법과 유사한 공간에 대한 참의를 지속적으로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捨教入禪의 정당화, 教와 구별되고자 하는 禪의 자의식이 표면화 된 사례가 바로 참구의 구별짓기다.

간화선은 기존의 불교 전통에서 ‘수행’이라는 용어와 의미상 별 차이가 없던 參究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를 단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주화란, 어떤 속성을 부각시키고, 어떤 속성을 축소하며, 또 다른 어떤 속성을 은폐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대상 또는 경험을 식별하는 자연적 방식이다.……특정한 속성의 부각은 필연적으로 다른 속성을 축소화하거나 은폐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범주화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다.”³⁴⁾ 參究를 參意와 參句로 분화하여 參意는 전통 교학불교가 내포하는 주지주의적 형태의 參究로 의미를 한정한다. 그리고 간화선은 이런 참구법과 구별되는 새로운 參究 방법으로 의미를 새롭게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범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범주화의 근거가 범주화되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대하는 주체의 태도 내지는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것이다. “범주의 (지각적·기능적 차원) 자연적 차원들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차원들이 부여하는 속성은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각 기제, 그리고 기능에 대한 인간의 관념 등에 근거한 상호 작용적 속성이다.”³⁵⁾

參意든 參句든 불법과 관련된 것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행위인 이상 모두 參究에 해당한다. 參究라는 용어는 수행(修行)이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 모두 수행이고 參究인 것이다. 선의 參究 방법은 화두이다. 화두라는 말귀나 글귀(句)를 수행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 參究 방법 특히 활구 수행을 핵심으로 한 간화선 수행을 따로 구별하여 參句로 칭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선이 동북아시아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參句가 參究를 대체하는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간화선의 등장과 더불어 參句는 參究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로써 선이 아닌 다른 불교수행법은 參究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특히 화두가 제출된 배경이나 동기를 따지거나, 화두를 해석하거나, 화두의 이면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과 같은 參意는 올바른 參究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적어도 이것이 간화선이 등장하던 시기에 정립된 간화선의 수행론적 정체성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³⁶⁾

하지만 간화선의 역사가 온전히 參句 중심의 수행론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참구와 참의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종사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참구와 참의는 간화방법(화두 참구법)의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³⁷⁾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여 다음과 같이 보

34) G. 레이코프·M. 존슨(저), 노양진·나익주(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211쪽.

35) 앞의 책, 212쪽.

36) 김태완은 參意와 구별되는 參句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선의 화두參究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화두를 앞에 두고 깨어 있다는 것이다. 육식의 어떤 경계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것들 위에 화두를 들고 깨어 있어야 한다. 화두를 통하여 경계 위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화두를 참구(參究)한다는 말은 화두 앞에서 깨어 있다는 말이지, 화두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화두를 해석하여 의미를 탐구하는 일은 결국 하나의 경계를 만드는 일일 뿐이므로 본래 머뭇 없는 마음자리에 계합하지는 못한다.” 김태완,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47』, 《현대불교》 2002.01.30일자.

37) 윤창화, 「화두참구의 두 가지 방법과 漢岩禪」, 『대각사상』 23, 2015, 193~232쪽. 인용문에서 화살 표시는 필자가 한 것이

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참구 중심(單提參句) : 원오·대혜 → 지눌·혜심 → 한암
- 참의 중심(全提參意) : 皖山正凝·蒙山德異·중봉명본 → 여말삼사 → 휴정·백파 →
백용성·경허·만공·전강·성철

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혜종고 당대를 전후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후의 간화선 전개과정에서는 參意 중심의 화두참구법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원대의 몽산덕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말 삼사를 통해 몽산덕이가 취한 참의 중심의 간화선 수행 방식이 한반도에 뿌리내리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는 조선조의 휴정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³⁸⁾

그렇지만 원오와 대혜가 參句를 간화선 화두 수행법의 차별성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고려의 지눌과 혜심 그리고 이후에는 방한암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³⁹⁾ 이렇게 간화선의 역사에서도 원대 이후 參意가 주류를 이루기는 했지만, ‘화두에 대한 參究’를 의미하는 參句는 선 특히 간화선이 기존의 다른 불교 수행 전통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짓는데 주목한 개념임이 분명하다.

Ⅶ.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선 수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인 參究와 參句에 대해 논구하였다. 이 용어는 선불교를 학술적으로 설명하거나 선 문헌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중 있게 쓰일 뿐만 아니라, 실제 선 수행자들이 수행 과정과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서도 핵심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의미의 모호성과 번역어로서의 부적합성이 심각하여 학술적 재검토 및 새로운 의미 규정 작업이 필요하다.

다. 직접 영향을 주었다는 뜻은 아니고, 참구와 참의가 뚜렷이 부각되는 마디를 서로 이어 놓은 것일 뿐이다.

- 38) 논문에서는 휴정의 경우, 『선가귀감』에 “大抵學者, 須參活句, 莫參死句”라는 구절이 있어 참구를 역설한 듯 보이지만, 지눌의 『간화결의론』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인용방식 역시 注에서 간단히 처리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화, 「화두참구의 두 가지 방법과 漢岩禪」, 『대각사상』 23, 2015, 209쪽.
- 39) “우리나라 간화선에는 單提無字방식(대혜식)과 全提無字방식(몽산식)의 두 가지 방법이 공존·혼재하게 되었으나, 사실상 대혜방식은 몽산 방식에 흡수되었고, 몽산 방식 일면도로 정착되었다.……한암중원이 몽산 방식 보다는 대혜 방식을 택한 것은 몽산의 방식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선승 대부분이 의단 형성을 이유로 몽산의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데도 유독 몽산 방식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미 대혜의 단계 방법인 ‘무’속에는 의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또 몽산의 방법이 參意로 死句에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윤창화, 「화두참구의 두 가지 방법과 漢岩禪」, 『대각사상』 23, 2015, 225~227쪽.

필자는 ‘참구’라는 용어 쓰임의 혼란이 한자어 參究와 參句의 혼용 및 의미 규정의 부정확성, 또 다른 한자어인 看, 提撕, 作活計, 參詳, 舉, 參, 究 등도 모두 우리말 ‘참구’로 번역되는 등의 사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특히 한국 불교사에서 선종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선에 국한된 용어였던 參句가 오히려 그보다 더 의미범주가 넓고 보편적인 용어였던 參究를 대치하면서 용어상의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보았다.

불교문헌에 나오는 한자어 ‘參究’는 현대어의 ‘탐구’나 ‘연구’와 의미상 별 차이가 없이 다만 그 대상이 불법(佛法)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이에 비해 參句는 그 의미범주에서 參究와는 구분된다. 參句가 參究로부터 구별지어지는 과정, 더 나아가 參究를 대치하기까지에 이르는 과정이 곧 선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불교의 주류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본 논문의 논지와 관련해서 왜 문제점만 얘기하고 대안 제시가 없느냐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참구의 새로운 의미를 밝혀내거나 새 번역어를 제안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은 아니다. 적절한 용어나 번역어는 학술적으로 규명하거나 논증함으로써 갑자기 정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 문헌에 대한 연구와 번역 과정에서 개별 용어의 의미와 번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명증한 의미를 파악하고 전달하려고 연구자들이 애쓰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많은 선 용어 가운데 ‘참구’를 사례로 들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참고문헌〉

- 『大慧普覺禪師語錄語錄』, 大正藏47.
- 『大慧普覺禪師宗門武庫』, 大正藏47.
- 『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 韓佛9.
- 『佛果圓悟禪師碧巖錄』, 大正藏48.
- 『佛果圓悟禪師碧巖錄』, 大正藏48
- 『三門直指』, 韓佛10.
- 『禪家龜鑑』 韓佛7.
- 『禪家龜鑑』, 韓佛9.
- 『禪宗決疑集』, 大正藏48.
- 『修禪結社文科釋』, 韓佛10

강호선, 「조선전기 蒙山和尚六道普說 간행의 배경과 의미」, 『동국사학』 5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김영옥, 「간화선 참구의 실재: 無字 화두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19, 보조사상연구원, 2003.

김호귀, 「간화선의 성립배경」, 『보조사상』 19, 보조사상연구원, 2003.

- 박태완, 「간화 용어의 번역에 관하여」, 『대혜보각선사어록(6)』, 소명출판, 2011.
- 박태완, 「화두를 참구하면 왜 돈오 견성하는가」, 『철학논총』 58, 새한철학회, 2009.
- 변희욱, 「大慧의 文字 공부 비판과 言語 中道」, 『불교학연구』 10, 불교학연구회, 2005.
- 송담, 『활구참선법: 송담스님 법어』, 인천: 용화선원 인쇄자료.
- 신규탁,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강의, 참구에 관한 검토: 『벽암록』 제1칙 『달미불식(達磨不識)』 번역을 사례로 삼아」, 『한국선학』 30, 한국선학회, 2011.
- 우제선, 「인식의 전환: 다르마끼르피와 태고보우의 깨달음」, 『보조사상』 22, 보조사상연구원, 2004.
- 월암, 「한국 간화선과 화두참구의 계승」, 『보조사상』 27, 보조사상연구원, 2007.
- 윤창화, 「화두참구의 두 가지 방법과 漢岩禪」, 『대각사상』 23, 대각사상연구원, 2015.
- 이창구, 「懶翁 禪의 실천체계」, 『범한철학』 26, 범한철학회, 2002.
- 정명옥(천봉), 「慧諶의 話頭參究法: 法語와 書答, 그리고 그 속의 禪詩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10, 한국선학회, 2005.
- 정성욱, 「알음알이의 분석적 연구: 초기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2.
- 한자경, 「간화선의 철학적 이해」, 『한국선학』 36, 한국선학회, 2013.
- G. 레이코프 · M. 존슨(저), 노양진 · 나익주(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 Thomas Cleary and J. C. Cleary tr., *The Blue Cliff Record*, SHAMBHALA: Boston & London, 2005.

〈현대불교〉 2002.01.30일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Home/Search>)

-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Philosophical Study on Practice of *Hwadu Chamgu*:
Penetration 參究 and Investigating of the Word 參句**

Park, Jae-hyeon*

'*Hwadu chamgu*' is a term used by ascetic in Korea to refer to a *Seon* 禪-discipline with a *Hwadu* 話頭. This term is used universally in Korea so that it does not need to use Chinese characters. And it is often used as a translator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Seon-discipline or studying it. However, '*chamgu*' is not a word commonly used in modern Korean society. Moreover, its meaning is not clearly defined, so it is inappropriate to use it as a scientific term or a trans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 of focusing on penetration 參究 or investigating of the phrase 參句 and its meaning in historical and literary terms. These two Chinese characters are pronounced the same as the Korean '*chamgu*'. In addition, Chinese characters of *kān* 看, *tíshī* 提撕, *zuòhuójì* 作活計, *cān xiáng* 參詳, *Jǔ* 舉, *cān* 參, *jiū* 究 are also translated into Korean '*chamgu*'. In this paper, I pointed out that this Hanja original and Korean translations are mixed or inaccurate.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chamgu*' is not suitable as a descriptive word or a translation.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reveal the new meaning of '*chamgu*' or suggest a translation. Appropriate meanings and translations will naturally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trying to understand and convey concrete and prominent meanings on the issue of the meaning and translation of individual terms in the process of researching and translating document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revealing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by taking the example of '*chamgu*' as a representative among many Seon Buddhist terms.

[Key Words] focusing on penetration(參究), investigating the phrase(參句), investigation the meaning (參意), Contemplation of a hwadu(看話), Hwadu(話頭)

* Professor, School of Global Culture Contents, Tongmyong University